

##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강미영 (인제대학교)\*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진로교과목 및 진로 취업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도구는 '진로의식'과 '진로태도 및 행동'의 2가지 영역으로 제작되었고, 연구대상은 A대학교 재학생 301명이다.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IPA분석, F검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했다. 중요도의 측면에서 높게 응답한 요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계발 하는 능력',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전공 기반 학습 동기 및 수행능력'이다. 준비도의 측면에서 높게 응답한 요소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반면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준비도의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둘째,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IPA분석 결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계발 하는 능력',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가 '중점개선 요소'로 분석되었다. 셋째,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전공별 직무 중심 진로교과목',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과목',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에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넷째, '진로태도 및 행동' 영역에서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및 하위요인에서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 교육계열이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및 하위요인 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역량에서는 성찰역량이 가장 높은 반면 커뮤니케이션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도 진로성찰이 가장 높은 반면 네트워킹과 진로관리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직면한 진로문제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기인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의 핵심은 그에 대한 대응 및 적응능력인 진로적응성을 갖추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진로역량 교육에 대한 다각도의 요구분석과 함께 최신 진로이론의 적용도 시도되어 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의 진보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진로역량,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 진로교과목.

\* 제1저자,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교육학부 조교수,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E-mail: cmkmy@inje.ac.kr; Tel: 055-320-3140; Fax: 055-334-5831.

## 1. 서론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입직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졸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대학에서의 진로·취업교육은 사회·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이지은 외, 2019).

이에 정부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해왔으며, 진로탐색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임연 외, 2006; 이견남, 201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준비단계인 대학에서 진로를 탐색하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연이나 이행 초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대응방안이기 때문이다(정재호 외, 2015). 하지만 그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학생들은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 적응하느라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도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변화까지 대비해야 하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왔다. 특히 최근 발발한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IMF 사태와 비견할 만큼 청년들을 고용 절벽에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 따른 채용시스템의 변혁까지 가져옴으로써 대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진로교육 책무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등 보다 심화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시기인데(변강희, 2009; 이형국·최윤경, 2019), 지금의 불안정한 사회 환경은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자기 진로를 구성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지금은 대학 진로교육이 대학생이 살아가는 교육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갈 교육의 환경과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더불어 새롭게 재정향해야 할 때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더 어려워진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진로개발에 있어 역량을 강조하는 진로역량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 역량을 강조하는 접근은 그동안 대학 진로·취업교육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진로교육에 있어 역량기반의 관점은 단편적 정보 획득, 일회성 진로 결정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진로지도와 달리 행동과 가치, 태도의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이지연, 2002; 임연, 2008).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개발에 필수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일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단기적 진로성공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진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의미하는 바도 크다(정지은·정철영, 2017). 특히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여 평생교육과 생애진로개발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차두원, 2016; 이지은 외,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역량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포함한 진로개발역량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진로개발역량이란 진로탄력성, 창의성, 융복합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이지연, 2017). 따라서 미래지향적 진로개발역량을 기르기 위한 진로역량 교육은 모든 국민이 변화되는 직업세계 속에서 적응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로를 개발하며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즉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진로장벽에 좌절하지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미래 직업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유연하게 진로계획을 수정해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이지연, 2017).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은 국가 진로교육 정책에 부합되는 진로역량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재정향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실효성 있게 구현해내기 위한 진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별 인재상이나 핵심역량의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커리어 로드맵과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며 진로역량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대학이 이루어 낸 진로·취업교육의 체계화 및 성과는 생애진로개발에 대한 진로상담 분야의 수요와 맞물려서 마침 수년간 진행된 대학역량평가에서 진로 및 취업지원 영역이 학생지원 지표의 중요한 축이 되었음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만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문제는 저마다 진로역량 교육을 표방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백화점식 진로·취업 교육이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절차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사례는 희소하다는 사실이다. 여러 연구와 정책을 통해 강조되어 온 진로역량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진로’는 대학역량평가 대비를 위해 무수히 활용되면서도 정작 교육과정 개발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진로·취업교육은 그간의 교육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역량 교육과정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제는 보다 교육적·실제적 노력을 통해 대학 진로·취업교육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단계로 판단된다.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으로 기존 사례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 상황에 맞는 연구 기반의 요구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제공되는 대학 진로교과목은 진로역량 교육으로서 더욱 전문적·체계적 절차를 통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대학의 진로교과목 및 진로·취업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둔다. 이러한 학문적·실제적 노력을 통해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의 핵심이 학생들의 목소리로서 확인되길 바란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가 대학 진로·취업교육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에 의미 있게 기여되길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진로역량 교육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상담서비스의 핵심목표는 학생의 진로발달 과업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이지연, 2002). 기업과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심리학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러한 역량이 진로개발 분야에 적용되어 진로역량 혹은 진로개발역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박가열, 2009). 즉 개인의 진로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은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수행능력(McClelland, 1973)’이라는 역량 개념에 기반하여 진로역량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Arthur, Inkson, & Pringle, 1999; 정지은, 2017).

선행연구에 나타난 진로역량과 관련된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진로(Career)는 개인이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위의 총체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직업생활과 관련된 제한된 의미로 쓰여진다(임연, 2008).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인생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이 개인의 생애 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이지연, 2002). 진로역량(Career Competencies)은 Hacket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여성이 전문가 수준의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되며 학문적으로 처음 등장했다(Hackett, Betz, & Doty, 1985; 정지은, 2017).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와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설명되며(김봉환 등, 2006),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며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김창완 외, 2014; 정지은·정철영, 2017).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법 제 4조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명시되어 있다. 취업역량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하며, 대학생의 취업역량은 채용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되는 역량으로 설명되어진다(이종찬, 2019). 종합해보면, 진로역량이란 “개인이 주도적으로 생애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진로역량은 미국 국가 진로개발 가이드라인(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 NCDG)이 제시한 개념이다. 자아인식, 학업과 직업탐색, 진로계획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초등, 중등, 고등, 성인별 각각 총 12개 지표로서 세부내용이 제시된다. NCDG에서 제시한 성인 수준에 적합한 진로역량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Howard & Amy, 1990, 이지연, 2002). 첫째, 자기 이해 영역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는 능력, 효과적인 행동들을 유지하는 능력, 발달적 변화와 전이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둘째, 학업과 직업탐색 영역은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기술, 일과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능력, 진로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술, 직업을 찾고 얻고 유지하며 바꾸는 능력, 사회의 요구와 기능들이 어떻게 일의 구조와 본질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진로계획 영역은 의사결정하는 능력, 일이 개인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남성·여성의 역할들을 이해,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Howard & Amy(199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NCDG 진로역량 지침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개발 활동에 기업 및 산업 인사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며, 자아인식 영역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진로 계획 영역의 활동들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며,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에 있어 현실적 인식과 활동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정지은·정철영(2017)은 인텔리전트 진로 모델을 기반으로 진로역량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여 Akkerman et al.(2013)이 제시한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행동역량으로 진로역량을 구성하였다. 자기성찰, 진로성찰, 자기표현, 네트워킹, 진로탐색, 진로관리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주도적인 진로개발과 관계 중심의 진로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단기적 진로성공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진로성공을 위한 자원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성찰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역량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실천적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진로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 진로교육은 기존의 단선형 진로관에 뿌리를 둔 목적지향적인 성격에서 관리 운영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한 개인의 삶의 양식으로서 총체적인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삶의 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조현영·손민호, 2017). 대학 진로교육이 진로역량 교육으로 재정향되면서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진로역량 교육을 본질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진로역량 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이처럼 선행연구에 제시된 진로역량의 구성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 2.2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요구(needs)란 현재 상태(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it should be)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Kaufman, 1998; 최현주, 2018). 교육요구는 교육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교육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며(조대연, 2009), 요구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은 합당한 정보와 준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 후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아라, 2007; 박민지·김계현, 2015). 요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면담, 관찰, 소집단 회의 등 다양한데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얻어진 자료를 명확한 정의와 적절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최현주, 2018).

대학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요구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시기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던 20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진로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전 생애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박가열, 2009). 대학생들

이 원하는 진로개발역량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현실적 준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었고(김경화, 2012), 대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대학생의 진로역량별 상담서비스 요구도를 확인하여 대학 진로교육에의 시사점을 찾기도 했다(정은이, 2014). 이러한 시도는 사회변화와 국가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며,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진로역량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대학의 구체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연구 기본 정보

순번	연구자 (연구시기)	소속	연구 제목	학회지명	조사대상	인원 (명)
1	박가열 (2009)	한국고용 정보원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 연구	전국종합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	2,243
2	김성남, 변정현 (2012)	서울대, 한국고용 정보원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대학생, 대학교 취업담당관,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연구	사업 <sup>1)</sup> 참여 대학1~4학년, 취업담당관, 인사담당자	2,185/ 76/44
3	이건남 (2012)	한국 교원대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직업교육 연구	사업참여대학 1~4학년, 인사담당자	2,145/ 44
4	김경화 (2012)	한국 해양대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 연구	지방 4년제 4학년	227
5	정은이 (2014)	청운대	대학생의 진로 역량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요구도 분석	교육방법 연구	지방 4년제 1~4학년	341
6	박민지, 김계현 (2015)	서울대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 연구	수도권 4년제 1~4학년	304
7	이정은, 김현순 (2016)	단국대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 심교과교 육연구	지방 4년제 1~4학년	362
8	윤혜영 외(2017)	계명대	대학생 진로발달수준별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한국사회 과학연구	지방 4년제 1~4학년	560
9	이지은 외(2019)	직업능력 개발원	대학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학생 진로교육 인식과 요구분석	취업진로 연구	패널리스트 (1~4학년)	897
10	이종찬 (2019)	동덕여대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경력관리활동, 면접전형, 인재상, NCS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취업진로 연구	전국 4년제 3~4학년	351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조사에 앞서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논문 검색을 실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사이트에서 논문

1)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을 지칭함

검색에 활용한 키워드는 ‘대학생 진로교육 요구도’, ‘대학생 취업교육 요구도’, ‘대학생 진로상담 요구도’, ‘대학생 진로서비스 요구도’ 등 이었다. 그 결과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관련 연구로 분류되면서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5편이었다. 그중에서 조사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 1편, 연구 목적을 e-포트폴리오 활용으로 제한한 연구 1편, 동일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중복해서 활용한 연구 3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0건의 연구가 내용분석 대상 논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위의 <표 1>과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문항개발 및 분석방법

순번	조사구성(하위요인)	문항개발	문항수	분석방법
1	1)구직기술 및 직무능력향상, 2)진로설계, 3)진로탐색 및 직업관 정립	이영대(2007) 참조·개발	16	요인분석, 보리치계수
2	1)구직지식군, 2)구직기술군, 3)구직태도군, 4)구직적응군	고재성 외(2010) 참조	52	t검증, f검증, 보리치공식
3	1)구직지식군, 2)구직기술군, 3)구직태도군, 4)구직적응군	고재성 외(2010) 참조	.	빈도분석,보리치공식,허쉬코비츠임계함수
4	1)진로개발역량(자기관리 및 직업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 2)진로 및 취업지원서비스	개발(NCDG, 캐나다 지킴, 선행연구 참조)	.	t검증, 보리치계수, 하위영역 평균점수
5	진로역량: 1)직무적응능력, 2)지식과 기술, 3)태도와 가치)	개발(진로역량 내용분석)	29	합의적질적분석, t검증, 보리치계수
6	1)진로정체감, 2)진로결정수준, 3)진로정체감, 4)진로서비스 요구 (자기이해, 진로정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구직기술,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존 문항 참조·개발	73	군집분석, 다변량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7	진로개발역량(개발문항): 1)경력개발, 2)진로계획수립, 3)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 4)진로정보탐색, 5)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6)진로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문헌분석, 자문)	40	대응포본 t검증, IPA, 보리치계수
8	1)진로결정 프로파일, 2)진로결정 수준척도, 3)진로탐색 행동척도, 4)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 5)대학생 진로서비스요구도	박민지,김계현 (2015) 참조	81	군집분석, 평균분석,교차분석, t검증,일원변량분석
9	개발문항: 1)진로교육 현황, 2)진로교육 인식, 3)진로교육 요구분석	.	.	빈도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10	개발문항: 1)경력관리활동1·2·3, 2)면접전형, 3)인재상, 4)NCS직업기초능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항 참조·개발	55	IPA, LFM, 대응포본 t검증, 보리치공식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연구자 소속은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직업능력개발원 등 진로 및 취업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국립대 및 사립 대학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연구 제목에서 ‘역량’은 진로개발 역량, 구직역량, 진로역량, 취업역량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교육’은 진로역량 교육, 진로교육, 진로서비스 등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은 주로 전국 혹은 개별 대학이 단위였는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화(2012)의 연구와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종찬(2019)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4년제 대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밖에 김성남·변정현(2012)의 연구와 이진남(2012)의 연구에서는 취업담당관이나 기업 인사담당자가 포함되기도 했다. 조사 참여 인원수는 개별 대학에서 실시된 조사의 경우 적게는 227명에서 많게는 560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구성은 각 연구에서 규정한 진로역량 개념에 따른 요인 영역과 각 연구의 요구분석 목적에 따라 제작 혹은 개발된 질문영역으로 구성됨이 나타났다. 이에 각 연구에서의 진로역량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문항 외에 진로 및 취업지원서비스(이진남, 2012)나 대학생 진로서비스 요구(박민지·김계현, 2015; 윤혜영 외, 2017)에 대한 질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개발은 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개발한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에 필요한 문항을 문헌분석 및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개발한 연구(이정은·김현순, 2016)도 있었다. 각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 문항 수는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81개로 확인되었다. 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 t검증, 보리치 분석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분석(박민지·김계현, 2015; 윤혜영 외, 2017), IPA분석(이정은·김현수, 2016, 이종찬, 2019), LFM(이종찬, 2019) 등 진로역량 교육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해내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중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인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1명이다. A대학교는 2019년 2학기부터 재학생 진로지도 교과목 개설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 2학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1학년과 2학년을 구분하여 학년별 진로교과목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2학년 대상의 ‘진공 맞춤형 진로교과목’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학생 요구분석에 해당한다.

설문조사는 교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참여 인원을 학과별로 할당하여(의과대학 제외) 전체 학과에 공지한 후 실시되었다. 당초 학과별로 할당된 전체 인원은

406명이었으나,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30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74.1%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계열	인문계열	8	2.7
	사회계열	50	16.6
	자연계열	53	17.6
	공학계열	79	26.2
	의약계열	62	20.6
	예체능계열	10	3.3
	교육계열	39	13.0
학년	1학년	128	42.5
	2학년	53	17.6
	3학년	79	26.2
	4학년	41	13.6
합계		301	100.0

##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맞춤형 진로교과목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의 목적에 따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제작된 문항과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정지은·정철영, 2017)가 함께 사용되었다. 연구 과정은 1) 문헌 고찰, 2) 예비 문항 개발, 3) 외부 전문가 자문, 4) 내부 전문가 및 학생 의견 수렴, 5) 조사 실시, 6) 결과 분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계획된 연구절차에 따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 문항을 개발한 후에는 진로상담전문가로서 현재 상담 분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교육학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교내 진로·취업 관련 전문가 검토, 파일럿 테스트,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문항을 제작하였다.

### 3.2.1 진로의식

‘진로의식’ 영역은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총 22문항으로,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와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 문항은 대학의 핵심역량인 창의역량 함양을 위한 전공 맞춤형 진로교과목 개발의 목적에 따라 미국 NCDG 진로개발 역량 12개 영역의 내용을 참조하여 진로역량 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제작되었다. 문항 제작 과정에서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정지은·정철영, 2017)와 관련 학술발표 연구(강경연, 2019)는 중요하게 참조되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2문항이 추가되어 최종 문항은 14개 문항으로 결정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요소에 대해 중요도와 준비도를 구분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의 필요도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8문항이며, 이지은 등(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Crombach's  $\alpha$ )를 산정한 결과,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의 중요도와 준비도 문항은 각각 .911과 .919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교과목 운영방식'의 필요도 문항은 .810으로 나타났다.

### 3.2.2 진로태도 및 행동

'진로태도 및 행동' 영역은 정지은·정철영(2017)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총 29문항이며, 성찰역량 10문항, 커뮤니케이션 역량 9문항, 행동역량 10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성찰역량의 하위요인은 진로성찰 5문항, 자기성찰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커뮤니케이션역량의 하위요인은 자기표현 5문항, 네트워킹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역량의 하위요인은 진로탐색 5문항, 진로관리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mbach's  $\alpha$ )는 .95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조사내용

구분		내용	출처(문항수)	신뢰도
진로 의식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 에 필요한 요소	중요 도	NCDG 진로개발 역량 12개 영역 참조하여 제작 (14문항)	.911
		준비 도		.919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 필요도	1) 전공별 직무 중심 진로교과목 2) 유사 전공별 진로교과목 3)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과목 4)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 5) 프로젝트 중심(예: 팀기반 진로탐구활동) 6) 교과연계 멘토링 및 상담 지원 7)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토의실습 수업의 병행 8) 비교과 활동 연계(예: 학습수행결과를 활용한 교내외 공모전 참가 지원)	이지은 외(2019) 참조하여 제작 (8문항)	.810
진로 태도 및 행동	성찰 역량	- 진로성찰 문항 - 자기성찰 문항	정지은, 정철영 (2017) (29문항)	.951
커뮤니케이션 역량	- 자기표현 문항 - 네트워킹 문항			
행동 역량	- 진로탐색 문항 - 진로관리 문항			

###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 23.0이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했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mbach's  $\alpha$ )를 산출했다. 영역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식 영역 중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의 중요도와 준비도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t-test를 실시했으며,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도식화된 교육 요구도 분석을 위해 Martilla & James(1977)가 제시한 IPA(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분석도 실시했다. IPA 분석은 분석 대상에 따른 필요수준과 수행수준 비교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4사분면에 표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나타내주는 요구분석 방법이다(이종찬, 2019). IPA 분석은 네 개의 사분면으로 교육요구도와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때문에 요구도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초점영역과 유지영역 그리고 축소영역을 구분하기 용이하다(이정은·김현순, 2016).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사분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도를 X축, 중요도를 Y축에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사분면은 중요도와 준비도가 모두 높은 분면으로 유지강화 요소가 도출되는 영역이다.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분면으로 중점개선 요소가 도출되는 영역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준비도가 모두 낮은 분면으로 점진개선 요소가 도출되는 영역이다. 4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지만 준비도가 높은 분면으로 현상유지 요소가 도출되는 영역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 IPA 매트릭스 영역별 도출 요소

중요도 (필요수준)	2. 중점개선 요소 (중요도 H 준비도 L)	1. 유지강화 요소 (중요도 H 준비도 H)
	3. 점진개선 요소 (중요도 L 준비도 L)	4. 현상유지 요소 (중요도 L 준비도 H)
	준비도(현재수준)	

둘째, 진로의식 영역 중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학생의 필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2) 본 연구에서 '융합진로'는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창의적으로 결합·통합·응용함으로써 새롭게 창출한 진로'로 규정하여 설문지의 해당 문항에 이와 같은 설명을 제시하였음.

셋째, 진로태도 및 행동 영역에서는 대학생인 응답자의 ‘진로역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역량의 하위역량과 하위요인별로 기술통계 분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요인 간 차이 비교를 위해 F검증을 실시했다.

## IV. 연구 결과

### 4.1 진로의식

#### 4.1.1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준비도 인식 분석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준비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에 4.01점에서 4.53점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준비도의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에 2.96점에서 3.69점까지로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중요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즉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응답한 중요도 인식에 비해 현재의 준비도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준비도 인식 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준비도		t
	M	SD	M	SD	
1. 긍정적 직업의식과 진취적 태도	4.25	.82	3.24	.83	15.746***
2.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4.35	.72	3.41	.82	17.491***
3.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4.10	.77	3.03	.82	18.454***
4.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4.40	.64	3.69	.77	15.091***
5.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	4.32	.67	3.26	.75	20.545***
6. 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4.31	.69	3.18	.78	20.003***
7.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4.53	.59	3.24	.89	22.710***
8.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4.01	.78	2.96	.83	18.086***
9.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4.18	.70	3.19	.75	19.326***
10.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4.28	.67	3.39	.80	17.150***
11. 진공 기반 학습동기 및 수행능력	4.36	.69	3.21	.77	18.484***
12.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리	4.25	.76	3.17	.83	17.481***
13.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4.29	.75	3.28	.82	18.990***
14.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4.38	.67	3.26	.80	20.805***
전체	4.29	.48	3.26	.56	28.158***

\* p<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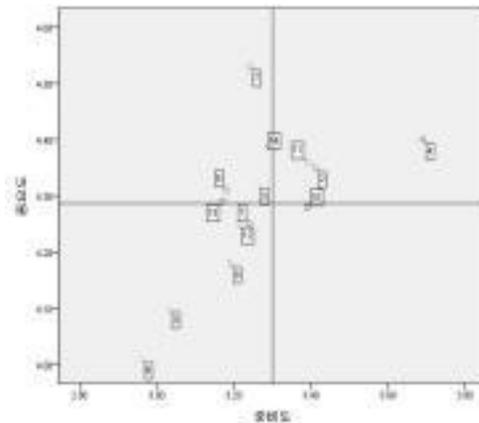
중요도의 측면에서 높게 인식한 요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M=4.53, SD=.59),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M=4.40, SD=.64),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M=4.38, SD=.67), ‘전공 기반 학습동기 및 수행능력’(M=4.36, SD=.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M=4.01, SD=.78),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M=4.10, SD=.77),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M=4.18, SD=.70)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도의 측면에서 높게 인식한 요소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M=3.69, SD=.77),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M=3.41, SD=.81),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 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M=3.39, SD=.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M=2.96, SD=.83),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M=3.03, SD=.82)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2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IPA 분석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대학생의 진로의식 특성과 양상을 파악하고, 진로역량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IPA분석 결과



첫째,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지만 준비도는 낮게 인식하는 2사분면에 위치한 요소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가 중점개선 요소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요도와 준비도를 모두 높게 인식하는 1사분면에 위치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전공 기반 학습동기 및 수행능력’,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은 유지강화 요소로

도출되었다. 셋째, 중요도와 준비도가 모두 낮게 인식하는 3사분면에 위치한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리’, ‘긍정적 직업의식과 진취적 태도’는 점진 개선 요소로 도출되었다. 넷째, 중요도는 낮지만 준비도는 높게 인식하는 4사분면에 위치한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상유지 요소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계열 및 학년별로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열 및 학년별로 도출된 중점개선 요소는 다음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IPA분석 결과

구분	계열						학년				전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	예체	교육	1	2	3		4
1. 긍정적 직업의식과 진취적 태도					○						○	
2.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											
3.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4.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						
5.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	○	○	○				○			○		○
6. 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		○	○	○				○		○	○
7.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		○	○	○		○	○	○		○
8.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											
9.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					○						
10.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						
11. 전공 기반 학습동기 및 수행능력												
12.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리			○			○						
13.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	○		○			○		○		○
14.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				○			○		○

### 4.1.3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 인식 분석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공별 직무 중심 진로교과목’(M=4.34, SD=.71),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과목’(M=4.22, SD=.82),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M=4.14, SD=.81)에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토의·실습 수업의 병행’(M=3.42, SD=1.00), 프로젝트 중심(M=3.67, SD=.94)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육계열(M=4.49, SD=.72)이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예체능계열(M=3.70, SD=.82)과 공학계열(M=3.94, SD=.8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

로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과연계 멘토링 및 상담 지원’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1학년(M=4.26, SD=.75)이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4학년(M=3.78, SD=.9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진로교과목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 분석 결과

구분	진공별 직무 중심 진로교과목		유사 진공별 진로교과목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과목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		프로젝트 중심		교과연계 멘토링 및 상담 지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토의·실습 수업의 병행		비교과 활동 연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34	.71	3.94	.78	4.22	.82	4.14	.81	3.67	.94	4.10	.85	3.42	1.00	3.84	.95	
계열	인문	4.25	1.04	4.13	.83	4.50	.53	4.13	.83	4.00	.93	4.25	.89	3.25	.89	3.75	1.04
	사회	4.32	.62	4.00	.64	4.26	.80	4.16	.74	3.96	.81	4.26	.75	3.74	.90	4.08	.85
	자연	4.36	.65	3.94	.82	4.32	.87	4.19	.81	3.66	.96	4.00	.78	3.32	1.00	3.94	.99
	공학	4.29	.72	3.77	.70	4.09	.83	3.94	.84	3.65	.97	3.94	.95	3.25	.98	3.87	.94
	의약	4.37	.81	4.02	.91	4.27	.79	4.18	.80	3.45	.92	4.10	.84	3.31	1.10	3.58	1.03
	예체능	3.90	.32	3.50	.53	4.00	.67	3.70	.82	3.30	.95	4.00	.82	3.30	.67	3.70	.95
	교육	4.51	.64	4.15	.78	4.23	.90	4.49	.72	3.74	.97	4.36	.81	3.72	1.02	3.77	.81
	유의도	F=1.158 (0.329)		F=1.902 (0.080)		F=0.800 (0.571)		F=2.679* (0.015)		F=1.859 (0.088)		F=1.588 (0.150)		F=2.117 (0.051)		F=1.533 (0.167)	
학년	1학년	4.37	.70	3.98	.70	4.21	.83	4.19	.78	3.73	.92	4.26	.75	3.38	.98	3.80	.90
	2학년	4.47	.67	3.94	.77	4.30	.89	4.08	.87	3.64	.88	4.09	.86	3.49	1.07	3.98	.87
	3학년	4.27	.73	3.82	.87	4.24	.77	4.16	.79	3.66	.96	4.01	.93	3.48	.97	3.86	.98
	4학년	4.22	.72	4.05	.80	4.12	.84	4.00	.84	3.54	1.05	3.78	.91	3.32	1.06	3.73	1.12
	유의도	F=1.372 (0.251)		F=0.963 (0.411)		F=0.385 (0.764)		F=0.692 (0.558)		F=0.494 (0.686)		F=3.778* (0.011)		F=0.386 (0.763)		F=0.669 (0.572)	

\* p<0.5, \*\* p<0.01, \*\*\* p<0.001

## 4.2 진로태도 및 행동

### 4.2.1 진로역량, 하위역량, 하위요인 수준 및 응답자 특성별 분석

진로태도 및 행동 영역에서 대학생인 조사 참여자들이 응답한 진로역량(전체)의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81, SD=.57).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평균점수도 모두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찰역량(M=4.00, SD=.57), 행동역량(M=3.74, SD=.67), 커뮤니케이션역량(M=3.69, SD=.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역량(전체) 수준에 대한 계열별 차이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180, p<0.01), 하위역량 수준에 대한 계열별 차이를 비교했을 때도 성찰역량(F=3.180, p<0.5), 커뮤니케이션역량(F=3.180, p<0.5), 행동역량(F=3.18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역량 및 하위역량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교육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

난 반면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역량 및 하위역량 수준에서 학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진로태도 및 행동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구분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		진로역량(전체)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0	.57	3.69	.65	3.74	.67	3.81	.57	
계열	인문	4.05	.65	3.90	.64	3.69	.50	3.88	.56
	사회	4.07	.54	3.78	.62	3.82	.70	3.89	.56
	자연	3.87	.63	3.68	.63	3.79	.62	3.78	.57
	공학	3.93	.48	3.52	.63	3.62	.57	3.70	.48
	의약	4.08	.59	3.82	.67	3.79	.74	3.90	.61
	예체능	3.63	.57	3.27	.64	2.96	.71	3.29	.55
	교육	4.19	.62	3.83	.62	3.91	.68	3.98	.58
유의도	F=2.463* (0.024)		F=2.760* (0.013)		F=3.494** (0.002)		F=3.180** (0.005)		
학년	1학년	4.01	.58	3.72	.67	3.75	.64	3.83	.56
	2학년	4.04	.52	3.64	.56	3.78	.53	3.82	.45
	3학년	3.92	.56	3.62	.60	3.63	.71	3.73	.57
	4학년	4.08	.64	3.84	.75	3.83	.83	3.92	.69
	유의도	F=0.882 (0.451)		F=1.228 (0.300)		F=1.019 (0.384)		F=1.137 (0.334)	

\* p<0.5, \*\* p<0.01, \*\*\* p<0.001

<표 9> 진로역량 하위요인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구분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				
	진로성찰		자기성찰		자기표현		네트워킹		진로탐색		진로관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2	.65	3.98	.59	3.92	.67	3.52	.80	3.82	.70	3.66	.72	
계열	인문	3.98	.74	4.13	.68	4.09	.76	3.75	.70	3.83	.55	3.55	.67
	사회	4.12	.60	4.02	.56	3.98	.63	3.61	.75	3.93	.71	3.71	.76
	자연	3.96	.68	3.78	.67	3.84	.63	3.55	.79	3.88	.63	3.70	.70
	공학	3.88	.55	3.98	.53	3.77	.65	3.32	.83	3.70	.58	3.53	.65
	의약	4.11	.68	4.05	.60	4.04	.73	3.65	.80	3.86	.77	3.73	.78
	예체능	3.62	.75	3.64	.51	3.30	.64	3.24	.75	2.98	.80	2.94	.66
	교육	4.25	.73	4.13	.60	4.16	.60	3.57	.79	3.96	.75	3.86	.65
유의도	F=2.560* (0.020)		F=2.289* (0.036)		F=3.626** (0.002)		F=1.586 (0.151)		F=3.525** (0.002)		F=2.864* (0.010)		
학년	1학년	4.04	.66	3.99	.63	3.93	.65	3.55	.85	3.87	.67	3.63	.69
	2학년	4.07	.58	4.00	.56	3.93	.62	3.40	.67	3.83	.60	3.73	.58
	3학년	3.92	.64	3.91	.56	3.82	.71	3.46	.74	3.71	.72	3.56	.75
	4학년	4.11	.76	4.05	.61	4.06	.75	3.66	.90	3.85	.85	3.82	.87
	유의도	F=0.973 (0.406)		F=0.537 (0.657)		F=1.231 (0.299)		F=1.035 (0.378)		F=0.903 (0.440)		F=1.457 (0.226)	

\* p<0.5, \*\* p<0.01, \*\*\* p<0.001

진로역량의 하위요인 평균점수도 모두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찰(M=4.02, SD=.65), 자기성찰(M=3.98, SD=.59), 자기표현(M=3.92, SD=.67), 진로탐색(M=3.82, SD=.70), 진로관리(M=3.66, SD=.72), 네트워킹(M=3.52, SD=.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역량 하위요인 수준에 대한 계열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로성찰(F=2.560, p<0.5), 자기성찰(F=2.289, p<0.5), 자기표현(F=3.626, p<0.01), 진로탐색(F=3.525, p<0.01), 진로관리(F=2.28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네트워킹(F=1.586, p<0.5)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역량 하위요인 수준에서도 전반적으로 교육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역량 하위요인에서도 학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은 위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 4.2.2 진로역량 요인 간 수준 차이 분석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간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찰역량(M=4.00, SD=.57)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M=3.69, SD=.65)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역량의 하위요인 간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성찰(M=4.02, SD=.65)과 자기성찰(M=3.98, SD=.59)이 높게 나온 반면 네트워킹(M=3.52, SD=.80)과 진로관리(M=3.66, SD=.7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간 수준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		F
	M	SD	M	SD	M	SD	
전체	4.00	.57	3.69	.65	3.74	.67	20.962***

<표 11> 진로역량 하위요인 간 수준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				F
	진로성찰		자기성찰		자기표현		네트워킹		진로탐색		진로관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2	.65	3.98	.59	3.92	.67	3.52	.80	3.82	.70	3.66	.72	24.66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역량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진로교과목 및 진로·취업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대학생의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을 위한 진로역량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논의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로 선정된 총 14개 요소의 중요도와 준비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수준과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중요도 수준은 매우 높게 응답한 반면 준비도 수준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모든 문항에서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응답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대학생들은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재 자신의 수행 수준인 준비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보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요구분석에서의 ‘요구’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와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최정임,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차이는 교육 요구분석의 초점이자 진로역량 교육의 목적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즉 요구분석은 동사적 요구인 ‘수단’보다는 명사적 요구인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최정임, 2002), 당연히 보일 수 있는 이 ‘차이’는 진로역량 교육의 목적을 획득한 결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역량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적응(adaptation)을 통해 가능하므로(Rychan & Slganik, 2003), 이는 진로역량 교육의 교육 목적을 진로적응성 함양에 둘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진로교과목 등의 진로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사전·사후 평가나 형성평가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 추이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도 분석된다. 역량의 속성상 그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수행도와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의 측면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전공 기반 학습동기 및 수행능력’을 높게 인식했다. 즉 대학생들은 평생학습자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적응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의 요소를 이해하면서 전공 학업의 중요성도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했다. 융합진로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은 미래의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좀 더 수용적인 방식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준비도의 측면에서도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을 높게 인식했고, ‘직업적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게 인식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준비도를 높게 응답한 것은 현재의 대학생들이 초·중등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진로교육을 경험한 세대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준비도를 모두 높게 응답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있어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요소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역량 교육의 교육목표이자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융합진로 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준비도의 측면에서도 낮게 인식되어 수용적이면서 효과

적인 개입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IPA 분석을 통해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중점개선 요소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진로개발 및 진로개발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높지만 준비도 지각이 낮은 ‘중점개선 요소’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가 도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진로역량 교육을 지향하며, 전 생애 설계의 관점과 진로의 구성(construction)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등은 단지 경험이나 지식·정보 등을 다양하게 많이 획득하는 측면만이 아닌 좀 더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정보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부여 하면서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자신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진로개발의 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된 문항이 최우선 중점개선 요소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대학생들이 자기 구성적 진로개발의 중요성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진로역량 교육의 핵심적 내용 요소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계열 및 학년별로 진로개발 및 진로적응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계열과 학년에 따른 중점개선 요소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진로탐색’ 요인 관련 요소들(‘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하는 능력’, ‘전공 관련 진로 및 직무정보의 평가와 해석’, ‘사회변화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이 중점개선 요소로 떠올라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로관리’ 요인에 해당하는 전환이나 적응과 관련된 요소들(‘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점개선 요소로 확인되어 학생들이 취업과 경력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 시키기부터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 취업기술 교육 및 실습에 대한 조기 교육의 요구도 시사되었다. 이에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 중심의 진로교과목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전문적 취업기술 교육이 연계된 종합적 진로취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수요 맞춤형 진로역량 교육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체능계열의 경우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리’,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의 기본적 진로관리에 대한 요소들이 중점개선 요소로 도출되며 타 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계열별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도 시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2학년 진로교과목에 적용할 때 전공 진로탐색 관련 경험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은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필요도 양상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 중 ‘전공별 직무 중심 진로교과목’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선행연구(이지은 외, 2019) 결과에서 나타난 직무 교육에 대한 선호와는 다소 다른 의미이기는 하나 대학생들이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서 ‘직무’와 ‘전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과목’,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맞춤형’ 진로교과목

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와 발견을 진행하며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에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손민호·조현영, 2020),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요구분석은 인식된 또한 인식되지 않은 요구를 모두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최정임, 2012). 진로교과목 운영 시에 이러한 ‘맞춤형’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보다 근원적인 요구를 깨달을 수 있고,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자신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는 교육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토의·실습 수업의 병행’, ‘프로젝트 중심’에서는 필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시점이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전면 실시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다소 추정되나 향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진로교과목 강의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도에서 계열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 사례 중심 진로교과목’에 대해 교육계열이 가장 높은 필요도를 응답한 반면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이 낮게 응답했고, ‘교과연계 멘토링 및 상담 지원’에 대해 1학년이 높게 응답한 반면 4학년이 낮게 응답한 결과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진로교과목의 운영 시에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토대로 학습자와 함께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량교육에서 학생들이 보다 근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어나르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라는 점에서 진로교과목은 계속적으로 학습자들과 함께 강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행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생 진로역량척도(정지은·정철영, 2017)를 조사 도구로 선정하였고, 진로역량과 하위역량 및 하위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응답한 대학생들의 진로역량 수준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진로역량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로역량의 하위역량별 평균점수는 성찰역량, 행동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18)의 ‘진로태도 및 행동’ 문항 조사 결과와 닮은 양상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성찰역량이 발달한 반면 실천적 행동역량에 대한 개발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굳이 문제로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성찰역량의 높은 점수에 대한 지지적 해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시기의 많은 생각과 고민은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진로개발을 적응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지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활동경험이 반드시 요구됨을(이숙정·김해란, 2012) 대학생들이 잊지 않으면 된다. 대학의 진로역량 교육은 그 활동경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해석해보는 역할을 보다 교육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계열에 따른 진로역량의 평균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

고, 하위역량 및 하위요인에 대한 계열별 평균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도 네트워킹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인 K-CESA의 4개년(2016-2019)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계열 학생들이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손유미, 외, 2019), 본 연구에서도 닮은 양상은 확인되었다.

반면 진로역량과 하위역량 및 하위요인 모두 학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3학년의 역량 평가점수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는 양상은 통계적 차이를 떠나 주목되었다. 이는 대학 자체 핵심역량을 학년별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김지원, 2019) 결과와는 일치된다. 하지만 K-CESA(손유미 외, 2019)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량 점수가 향상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이는 측정도구에 따른 결과 차이로 분석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김지원, 2019)와 본 연구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3학년의 경우 대학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필요 수준에 비해 자신의 준비도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학년 특성이 자기보고식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대학 진로교육 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차별적 개입이 가능해야 하므로(박가열, 2009; 이건남, 2012; 박민지·김계현, 2015; 윤혜영 외, 2017; 이지은 외, 2019), 이러한 결과에서 3학년에 대한 지지적 취업지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진로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 요구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의 대학생들이 직면한 진로문제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기인함을 좀 더 이해하였다. 그리고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의 핵심은 그에 대한 대응 및 적응능력을 갖추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며 ‘무엇’을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즉 진로적응성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따라서 미래 적응의 가장 훌륭한 예측은 현재의 적응이라는 점에서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은 도전과 실험들을 지금-여기에서 적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역량 교육에 대한 다각도의 요구분석은 계속적·순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과학적·전문적 조력을 위해 최신 진로이론의 적용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대학 진로취업교육은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거칠고 부족하나마, 본 연구결과가 이 시점의 현장에서 대학생 진로역량 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의 진보를 진척시킬 실제적 정보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진로·취업교육 영역에 교육과정 전문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역할로 기여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설문 응답자를 충분히 다양하게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계열별 응답자 비율이 일정치 못했던 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에서 성별 문항이 누락되어 성별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관련 결과 분석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지하며, 실제 교육과정 운영 시 수강생 사전 조사, 관찰, 인터뷰 등의 추가적 노력을 통해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 둘째, 특정 계열에서 진로역량 교육 요구의 양상이 여타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체능 전공 혹은

특수목적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연구가 더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References)

- 강경연(2019).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위한 진로교과목 교육요구 분석: 진로결정 수준과 전공일치감수준 군집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9. 11. 327-341.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경화(2012).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359-379.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남·변정현(2012).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대학생, 대학교 취업담당관, 기업체 인사 담당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1), 91-113.
- 김지원(2019).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창환·김본영·박종효·박현정·이광현·채재은(2014).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I): 대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가열(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민지·김계현(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변강희(2009). **지방캠퍼스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손민호·조현영(2020). **교육과정과 교육의 과정**. 서울: 학지사.
- 손유미·송창용·민숙원·오혁제·김민석(2019).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지원과 활용(2019)**, 기본연구(19-20).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정일·김민성·윤순경·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윤혜영·장은영·박빛나 (2017). “대학생 진로발달수준별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33-65.
- 이건남(2012).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직업교육연구**, 31(3), 199-225.
- 이숙정·김해란(2012). **환영받는 인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정은·김현순(2016).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001-1027.
- 이종찬(2019).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경력관리활동, 면접전형, 인재상, NCS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2), 117-141.
- 이지연(2002). “역량 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摸索”. **상담학연구**, 3(2), 419-438.
- 이지연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지은·정윤경·나현미·임해경(2019). “대학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생 진로교육 인식과 요구분석”, **취업진로연구**, 9(1), 55-75.
- 이형국·최윤경(2019). “대학생 진로발달과업 기반 대학일자리센터 커리어 컨설턴트들의 교육요구도 분석”, **직업교육연구**, 38(1), 43-64.
- 임언·최동선·강혜영(2006).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 임언. (2008).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 Paper, 2008-7.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은이(2014). “대학생의 진로 역량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6(4), 629-756.
-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지은·정철영(2017).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3), 91-111.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조아라(2007). **멘토링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현영·손민호(2017). “진로교육은 언제 역량교육이 되는가?”. **교육과정연구**, 35(1), 199-219.
- 차두원(2016). **미래 사회와 기술변화**, 미래 일자리 지역순회 포럼, 3-35.
- 최정임(2012).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실천 가이드**. 서울: 학지사.
- 최현주(2018). **초등 진로진담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Akkermans, J., Brenninkmeijer, V., Huibers, M., & Blonk, R. W. B. (2013). Competencies for the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questionnai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45 - 267.
- Arthur, M., Inkson, K., & Pringle, J. (1999). *The new careers: Individual action and economic change*. Sage.
- Hackett, G., Betz, N. E., & Doty, M. S. (1985). Th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career competencies for professional women. *Sex Roles*, 12(3), 393-409.
- Howerd Splete & Amy Stewart(1990), *Competency-Based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Kaufman, R.(1998). *Planning educational systems: A result-based approach*. Lancaster, PA: Technomic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The Analysis of Education Needs on Career Competenc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Mi-young, Kang\*

Inje University, Gyoengsangnam-do, Korea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for career competency education and to secur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areer course and career employment curriculum of universities. The research tools were made in two areas: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attitude and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1 students from A universit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way ANOVA, IPA analysis, and F-test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areer competency education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the level of readiness as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elements necessary for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adaptation'. The factors that answered highly in terms of importance are 'the ability to develop self through various experiences', 'positive interaction and networking with others', 'the ability to adapt to the changing occupational world', and 'major-based learn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ability'. The factors that answered highly in terms of readiness are 'positive interaction and networking with others', 'vocational self-understanding and positive self-concept', and 'understanding of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for career problem solving'.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low importance and readiness in terms of 'creative thinking for construction of convergence career' and 'presentation about their career'. Second, as a result of IPA analysis on 'elements necessary for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adaptation', 'ability to develop self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bility to acquire, maintain, and change career',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career and job information related to major',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career world', and 'understanding the effect of social change on the career world' were analyzed as 'concentration improvement element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cessity of 'how to operate career course',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o 'job-centered career course by major', 'customized career course by grade', and 'concrete case-centered career course' at a high level. Fourth, when comparing the difference of sub-competency and sub-factors of career competency in the area of 'career attitude and behavior', most of the education departments were the highest and the arts and physical

---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Inje University, 197, Inje-ro, Gimhae-si, Gyoengsangnam-do, Korea, 50834; E-mail: cmkmy@inje.ac.kr; Tel: +82-55-320-3140; Fax: +82-55-334-5831.

education departments were the lowest.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when comparing the sub-competency and sub-factors of career competency. In sub-competency, reflection competency was the highest,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the lowest, and career reflection was the highest in sub-factors, while networking and career management were low. This study could understand more about the nature of career problems faced by university students due to uncertainty, and confirmed that the core of career competenc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s to have career adaptability, which is the ability to respond and adapt to them. It is expected that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will be further advanced by analyzing various needs for career competency education and applying the latest career theory.

**Key Words** : Career Competency, Career Competency Education Needs, Career Competenc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Career Course.

---

---